

26기 거센 돌풍... '승급=고전' 속설 깼다

기수별로 가장 많은 승급 선수 나와 절반 이상이 우수급서 눈에 띄는 활약
김영수, 특선급 데뷔전 보란듯 우승
"인기에 비해 입상을 가장 높아 주목"



광명스피돔에서 선수들이 결승선을 앞두고 전력질주를 하고 있다. 경륜 신인 26기들이 '승급하면 고전한다'는 경륜의 속설을 깨고 각자의 등급에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

경륜의 여러 속설 중 '승급=고전'이란 말이 있다. 아래 등급에서 펄펄 날던 강자들도 승급을 하면 실력차로 경기력이 떨어진다라는 뜻이다. 선발급 선수가 우수급에 승급하면 기존 우수급 잔류자 외에 특선급에서 온 강급자들과 경쟁해야 한다. 위치 선정부터 제약을 받아 출발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지난해 26기들은 코로나로 유례없는 적은 경기에 참여했다. 그래도 김주석, 강동규, 김영수, 정지민이 특별승급에 성공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등급 심사에서는 전경호, 강동규, 윤승규, 김다빈, 박종태가 선발에서 우수로 승급했다. 기수별로 보면 가장 많은 숫자다. 25기의 승급자가 단 1명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26기 승급자들에게는 '승급=고전'이란 속설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은 승급 후에도 동급 준강자 또는 시드급 활약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김영수다. 그는 지난해 선발, 우수 모두 특별승급에 성공했다. 3월4일 첫 출전한 특선급 데뷔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최고의 기량을 가졌지만 신인이라 우수급을 배정받은 임

재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륜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 김영수는 경륜 지존인 임재민도 인정하고 앞뒤 연계를 피할 만큼 특선급에서 단기간에 자리를 잡았다.

강동규, 김다빈, 방극산, 이태운, 전경호, 정현수도 웬만한 우수급 편성에서는 모두 축으로 활약 중이다. 이밖에 박종태, 박지웅, 박찬수, 배수철, 정지민 등도 꾸준히 입상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배석현, 이인우 등은 선발에서 매 경주 압도적 격차로 우승을 차지해 하반기 승급이 확실적이다.

26기 전체 22명 중 절반이 넘는 선수가 우수급에서 뛰고 있는데 선수층이 두터워진 요즘에는 결코 쉽지 않은 결과다. 어느 기수든 자신의 등급에서 하위에 머무는 선수들이 있기 마련인데 26기

는 단 한 명도 고전하는 선수가 없다.

● '저주받은 기수'란 오명 깨

26기들의 이 같은 활약은 전문가들도 의외로 받아들이고 있다. 임재민으로 대표되는 25기에 비해 대어급이 없다는 이유로 훈련원 시절부터 기대가 크지 않았고, 데뷔 때는 코로나로 훈련원에서 쌓은 기량을 제대로 발휘할 기회도 적었다. 그래서 26기들을 가리켜 일부는 '저주받은 기수'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26기가 기대를 뛰어넘는 활약이 가능했던 요인 중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상황이 한몫했다. 대부분 가정을 가진 선배들은 이 시기 생활을 위해 다른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미혼이 많고 20대 초중반인 26기들은 경제적 부담이 덜해 훈련에 집중할

수 있었고 비교적 몸 관리도 잘할 수 있었다.

26기들은 팀 훈련에서 분위기 메이커를 담당하면서 각 지역팀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즘 뜨는 동광주와 세종팀이다. 26기의 활약에 각 팀 고참들은 올해 데뷔하는 27기들을 한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과거와 달리 젊은 피 수혈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된 것이다.

최강경륜의 박창현 발행인은 "경륜장적인 중 '화려한 명성의 노장보다 신인을 주목하라'는 말이 있다"면서 "특선급 예비 스타들이 넘쳐나는 26기들은 인기 대비 실제 입상률이 가장 높은 기수여서 앞으로 적잖은 기간 제몫을 해줄 효과 선수로 활약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체육진흥공단, 도박중독 예방교육·캠페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19일과 20일 인천지점과 부천지점에서 도박중독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경륜경정 이용객들에게 도박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책임도박에 대한 인식 강화와 경륜경정의 건전레저 문화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경주사업총괄본부 희망길벗(중독예방치유센터) 전문상담사가 '도박중독과 몰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이어 참여자를 대상으로 도박중독 진단 자가진단테스트(CPGI) 선별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을 찾아내고 현장에서 1대1 심층상담으로 탈 중독을 유도했다. 특히 이날 활동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신용회복과 과몰입자 채무조정 상담 등도 동등으로 진행해 많은 호응과 효과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한편 도박중독 예방교육은 26일과 27일 관악과 장안지점, 6월 1일과 10일은 성북과 동대문지점, 6월16일과 17일은 의정부와 강남지점에서 각각 진행한다.



광명스피돔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간 키즈파크.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광명스피돔 키즈파크' 시범운영 시작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는 18일부터 지역 어린이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 광명스피돔에서 키즈파크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경주사업총괄본부와 광명시 어린이집 연합회가 협업으로 운영하는 키즈파크는 광명스피돔 내 문화이벤트존을 활용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경륜 비 경주일)에 운영하며 광명시 어린이집 연합회 소속 75개 보육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무료이며 광명시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SNS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후 참여가 가능하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하루 50명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26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6월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 1년간 진행할 예정이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donga.com

김인혜 "경정 여왕 등극 실감 안나"

'2022 경정여왕전' 특별경정 첫우수 스타트. 휘감기 압도적인 기량 펼쳐

김인혜(12기 A2 32세)가 2022 시즌 경정여왕에 등극했다.

김인혜는 18일 미사리경정장에서 열린 '2022년 경정여왕전' 특별경정에서 코스 불리함을 극복하고 빠른 스타트에 이은 휘감기로 첫 우승을 차지했다.

올해 경정여왕전은 시즌 1회차부터 19회차까지 여자선수 성적상위 6명인 손지영, 안지민, 박정아, 김인혜, 이지수, 김지현이 출전했다. 당초 예상은 판복과 1코스의 이점이 있는 손지영의 우세였다. 하

지만 성적순 배정에 따라 4코스를 받은 김인혜는 출전선수 중 가장 빠른 0.15초의 스타트와 1번에서의 과감한 휘감기 승부를 펼치며 선두로 나서 끝까지 순위를 지켰다.

김인혜에 이어 이지수(3기 A2 42세)가 1주회 1번 마크에서 휘감아찌르기에 성공하며 상위권으로 올라서 2위로 끝났다. 11기를 대표하는 김지현(A2 35세)은 후미 그룹과의 치열한 순위 경쟁을 이겨내고 3위를 기록했다.

우승트로피와 함께 500만원의 상금을 받은 김인혜는 "실감이 안나. 이끌어준 선배 여자선수들이 있어 이런 영광스런 자리에 서게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정여왕전 시상식에서 우승 트로피를 든 우승자 김인혜 선수.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우승자 김인혜는 실업여자축구선수 출신이다. 신인이던 2013년에는 단 1승도 기록하지 못하고 3차 2회라는 초라한 성적을 거두었지만 2014시즌에는 1차 4회, 2차 9회, 3차 9회를 기록했다. 이후 2018시즌에는 1차 24회, 2차 19회, 3차 17회의 성적으로 개인 최고의 성적을 올렸다. 코로나 이전인 2019시즌에도 1차 18회, 2차

19회, 3차 10회로 꾸준히 성적을 쌓았다. 올해 들어서는 18회차 1일차 8경주(5월 4일)에서 휘감기로 경정 입문 10년 만에 개인통산 100승을 달성했다.

현재 김인혜의 12기 동기 중에는 경정 최강자 중 한 명인 조성민, 꾸준히 A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류석현, 한성근 등이 기수를 대표하는 트로이카로 꼽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인혜가 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외곽코스 입상률을 높이고 인코스의 빠른 스타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정한 스타트타임을 유지하는 훈련과 스타트 이후 1번에서의 과감성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서범 경정코리아 분석위원은 "남자선수 못지않은 피지컬과 승부근성, 거기에 경주흐름에 맞는 대처능력이 뛰어난 선수인 만큼 여자선수를 이길 차세대 스타로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스포츠 종합

SK 잔류 택한 김선형...3년, 8억에 FA 계약 체결

프로농구 올해 FA 시장 최고액 흥경기·송창용 영입 전력 보강



김선형

김선형(34)이 서울 SK와 자유계약선수(F A) 계약을 맺고 프랜차이즈 스타로 남았다. 올해 FA 시장 최고액인 8억 원에 사인했다.

SK는 24일 "김선형과 계약기간 3년, 첫 시즌 보수 8억 원(연봉 5억6000만+인센티브 2억4000만)에 FA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첫 시즌 보수 총액 8억 원은 올해 FA 시장 최고액이다. SK는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P O) 최우수선수(MVP)에 오르는 등 팀의 창단 이후 첫 통합우승에 기여한 김선형의 자존심을 세워줬다. 2011년 신인드래프트 전체 2순위로 SK에 입단한 그는 생애 2번째 FA 계약에서도 이적 없이 잔류를 택하며 프랜차이즈

스타로 남았다. FA 시장 개장 이후 김선형과 SK의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김선형은 내심 리그 최고 대우를 바랐다. SK도 김선형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싶었지만, 샐러리캡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선수가 원하는 바를 모두 맞춰 줄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다.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김선형이 SK를 떠날 수도 있는 것이냐는 예상이 나왔다. 하지만 양측은 줄다리기를 거듭한 끝에 계약기간에 먼저 합의한 뒤 24일 마지막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김선형은 "다시 한번 SK와 함께 하게 돼 기쁘고 좋은 조건을 제시해주신 구단에 감사 를 드린다. 구단이 내가 필요하다는 의지를 보여주셨다. 계약기간 동안 팀이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K는 이와 함께 이현석의 FA 이적과 안영준의 군 입대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드 흥경기(34)를 계약기간 2년, 첫 시즌 보수 총액 1억2000만 원, 포워드 송창용(35)을 계약기간 2년, 첫 시즌 보수 총액 7000만 원에 영입했다.

한편 고양 오리온을 인수하는 데이원자산 운용 농구단(가칭)은 이번 FA 시장 빅6 가운데 독보적 슈터인 전성현(31)을 품었다. 전성현은 계약기간 5년, 첫 시즌 보수 총액 7억 5000만 원에 FA 계약을 체결했다. 전성현은 데이원자산운용 초대 사령탑에 오른 김승기 감독과 인연을 이어가게 됐다. 김 감독과 전성현은 2021~2022시즌까지 안양 KGC 소속이었다. 아울러 전성현은 새롭게 출발하는 구단의 첫 번째 FA 영입 선수라는 영광도 안았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대한체육회, 전국 생활체육지도자 직무교육 진행

228개 시·군·구 체육회 2800명 대상 3년 만에 대면 교육...온라인 병행도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전국 228개 시·군·구 체육회 소속 2800명 생활체육지도자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비대면으로 시행되던 교육이 3년 만에 다시 대면으로 전환됐다. 전국 4개 권역 교육장(경기 가평, 충북 제천, 전남 화순, 경북 경주)에서 7월20일까지 12회차에 걸쳐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힘든 시기를 보낸 생활체육지도자를 격려하고 구성원 간 화합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은 매 회차 200명 내외가 참여하며 변화된 환경 속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토론, 지도동작 개발을 위한 실기수업, 안전한 지도활동을 위한 사례학습, 운동 처방 및 트레이닝방법론 등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대한체육회는 온라인 동영상 교육도 7월부터 병행할 계획이다.

대한체육회 주관 교육 외에도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 자체 교육을 포함한 생활체육지도자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확보와 지도활동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지역 단위에서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플루리체육의 첨병이다. 2000년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 체육회에 소속된 지도자도 활동을 전개해 왔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